

도야마현

눈부시게 빛남



미쉐린
그린 가이드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눈의 대계곡’ (4월 하순~6월 하순)



장대한 자연

3,000m 높이의 산들이 줄지어 있는 다테야마 연봉과 수심 1,000m에 달하는 도야마만이라는 다이내믹한 자연이 탄생시킨 절경의 보고 도야마현. 사계절마다 바뀌는 매력을 체험해 보자.



아마하라시 해안

바다와 산의 혜택을 받은 보고, 도야마현

절경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구로베다이아 단풍' (9월 하순~10월 중순)



다테야마 연봉, 호쿠리쿠 신칸센

매료되는 풍경

높이 20 m에 달하는 눈의 대협곡 사이를 걸어 보거나 일본에서 제일 깊은 구로베 협곡을 작은 토롯코 열차를 타고 달려 보는 등 아름다운 자연 속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구로베 협곡 토롯코 열차

도야마현은 일본 열도 혼슈의 한가운데 위치해 북쪽은 일본해에 접해 있다.

그 외 3면은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바다와 산을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식재료가 있는 지역이다.

계절에 따라 그 매력이 달라 봄은 꽃이 만개하며 여름은 시원한 고원과 계곡물,

가을은 단풍산들 그리고 겨울은 설국만이 가진 환상적인 풍경과 일본해의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겨울 방어

미식



도야마완즈시 富山湾鮭

난류와 한류가 흘러들어와 해저의 높낮이 차가 큰 도야마만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 수산 자원의 보고로 천연 활어조라고 불릴 정도다.

도야마만의 대표적인 해산물 음식이라 하면 붉은 대게와 방어.

특히 기름이 올라 살이 단단한 '겨울 방어'는 최고급이다.

도야마만의 제철 음식은 '도야마완즈시'에서 맛볼 수 있다.

음식

도야마만의 다양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계절마다 제철의 해산물도 바뀌기 때문에 언제 방문해도 맛있는 해산물이 가득하다.

붉은 대게 ‘고시노아카가니’ (9월~5월)

여장에서 향구가 가깝고 단시간 안에 어획해 삶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풍부하고 부드럽다. 게살이 달고 등딱지 내장이 맛있다는 특징이 있다.



겨울 방어 (11월~2월)

회를 뜨거운 다시물에 살짝 데치는 ‘부리 샤부’는 적당히 기름이 빠져 방어를 단백하게 먹을 수 있다.



불뚱 꿀뚜기 (3월~6월)

푸른빛을 내는 신비한 불뚱 꿀뚜기 (반딧불 오징어). 통통한 몸과 진한 맛의 내장이 절묘하다.



전통 공예

현대의 각지에서선 긴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또한 지금도 독창적인 연구를 거듭하며 세계를 향한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15

이나미 조각

일본 가옥이나 절과 신사의 장식에 쓰이는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조각. 현재는 폭넓게 인테리어에도 사용되고 있다.



16

다카오카 청동 제품



다카오카 청동 제품을 만드는 법을 배워 찻잔이나 작은 접시 등의 주석 제품을 만드는 체험도 가능하다.

400년 가까이 계속 돼 온 꽃꽂이 그릇, 불교 용품을 만드는 주물 기술이 근래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식기에까지 진화되었다.

체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터 여행의 추억까지 만들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있다. 도야마만의 체험으로 보다 충실한 여행을 해 보자.



17

구로베 협곡 토롯코 열차

일본 굴지의 대협곡 사이를 빠져나가듯 달리는 작은 관광 열차를 타고 신록, 단풍과 같은 봄, 여름,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미세린 그린 가이드

18

쇼가와 협곡 유람선

사계절마다 쇼가와 협곡을 유람선으로 즐길 수 있다. 눈이 내린 쇼가와 협곡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19

사불 체험

연령, 종교와 상관없이 정신을 집중시키는 정신수행. 오이와산 닛세키지에서 일 년 내내 체험 가능하다.

역사적 경관

옛 일본의 풍경이 짙게 남아있는 고카야마 지역과 역사 깊은 전통 공예 산업이 번창한 장인의 마을 다카오카 지역·이나미 지역을 포함해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과 거리가 곳곳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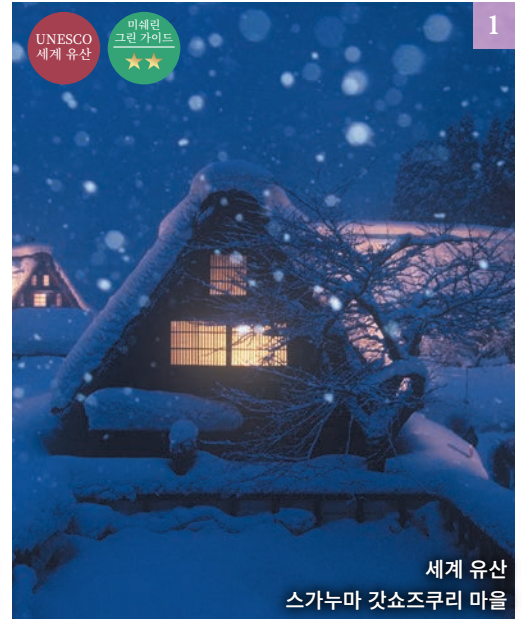


UNESCO 세계 유산
미쉐린 그린 가이드 ★★

1

세계 유산
아이노쿠라 갓소즈쿠리 마을

세계 유산에도 등록되었으며 지금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지은 지 350년 가까이 된 건물도 현존하며 숙박이 가능한 곳도 있다.



UNESCO 세계 유산
미쉐린 그린 가이드 ★★

1

세계 유산
스가누마 갓소즈쿠리 마을

계절마다 밤에는 라이트 업을 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국보
미쉐린 그린 가이드 ★★

2

국보
다카오카산 조이류지

17세기 전반에 지어진 사원으로 호화롭고 널찍한 구조가 압권이다.



미쉐린 그린 가이드 ★

3

조이센지

전통 공예 '이나미 조각'의 섬세한 기교를 정문을 비롯해 사원 곳곳에서 볼 수 있다.



4

요카마치 도오리

운치 있는 돌길이 펼쳐진다. 많은 조각 공방이 줄지어 있으며 거리를 걸으면 나무망치 소리가 들려온다.

이벤트



다카오카 미쿠루마야마 축제 (5월1일) 9

UNESCO 무형문화 유산



다테몬 축제 (8월 첫째 주 금·토요일) 10

UNESCO 무형문화 유산



옛추 야쓰오 오와라카제노본 (9월1일~3일) 11



도나미 튤립 페어 (4월 하순~5월 상순) 12

- 9 다카오카의 뛰어난 금 공예와 칠기 공예 등의 공예 기술로 아름답게 장식된 야마(수레)가 마을을 행진한다.
- 10 약 300년의 역사를 갖는 전통 행사. 거대한 삼각형의 유니크한 형태를 한 '다테몬'을 힘차게 끌고 다닌다.
- 11 초가을의 불거리. 300년 이상 계승되어온 노래와 춤은 신비하며 애수를 띤다.
- 12 300만 송이의 튤립이 일제히 화려하게 피는 국내 최대급의 꽃 축제이다.



5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미쿠리가이케 연못과 여름 산' (7월~8월)

해발 3,000m 높이의 북알프스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세계적인 산악 관광 루트.
봄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설벽 '눈의 대계곡'은 높이 20m에 달하기도 해 박력 넘친다.



6

아사히 후나가와
'봄의 사중주' (4월 초순경)

봄에는 북알프스, 벚꽃, 튜립, 유채꽃의
'사중주'를 연주.

자연

성장한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곳에서
다시 뿌리가 나와 나무 한
그루에 여러 개의 나무줄기가
자란다는 특징이 있다.



7

스기사와노 사와스기(늪 삼나무)



8

미야지마 협곡

폭포 소리와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자아내는 힐링 공간.
마이너스 이온으로 기분도 상쾌해진다.

도야마현 미술관 13

피카소 등 세계적인 명화와 추상 미술
등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 옥상 정원에서
다테야마 산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설계한 세련된 건축 디자인이 특징이다.
현대 유리 미술을 전시하고 있다.



도야마시 유리 미술관 14

미술관



Dale Chihuly, Toyama Mille Fiori, 2015,
H280xW940xD580cm, Toyama Glass Art Museum



Dale Chihuly, Toyama Float Boat, 2015,
H60xW917.5xD657.5cm, Toyama Glass Art Museum



도야마현 오시는 길

오사카/신오사카 특급 선더버드로 약 2시간 10분	도쿄 호쿠리쿠 신칸센 가가야키로 약 2시간 8분* <small>※최단 시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small>	도쿄 국제 공항 (하네다) 비행기(ANA)로 약 1시간
가나자와 호쿠리쿠 신칸센으로 약 25분	도야마 기토키토 공항 버스로 약 20분	

도야마



도야마현의 매력을 도쿄에서! 니혼바시 도야마관

103-0022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무로마치 1-2-6 니혼바시 다이에 빌딩1F

- **영업시간**
 - **매장** 10:30~19:30
 - **일본 요리 레스토랑** 11:30~14:30 17:00~22:30 (일·공휴일~21:00)
 - **바 라운지** 11:00~21:00
 - **관광 교류 살롱** 10:30~19:30
- 연중무휴 (연말연시, 빌딩 시설 점검일 등을 제외)

*영업 시간이 변경될 경우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니혼바시 도야마관 웹 사이트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s://toyamakan.jp/kr/>



도야마현

눈부시게 빛나는



UNESCO
세계 유산

미쉐린
그린 가이드
★★★★

세계 유산·고카야마

